

한빛원전 4호기 이어 2호기 격납건물 구멍

계획예방정비 공극 18곳 발견

콘크리트 타설 부실이 원인

1~6호기 모두 부실·결합 드러나

영광 한빛원전 4호기에 이어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두께 1.2m)에서도 공극(빈공간)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한빛원전의 자체점검과 외부 진단결과 가동중인 전체 6호기 모두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 안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14일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 2호기 점검 결과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공극 18곳이 발견됐다. 공극은

최대 깊이 18.8cm, 가로 40cm, 세로 5cm 크기였다. 공극은 콘크리트 타설 부실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극이 발견된 위치는 돔형 지붕과 수직벽 경계 구간으로, 전문가들이 격납건물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꼽는 곳이다. 콘크리트 외벽과 내부 철판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공극이 확인된 2호기 격납건물은 지난 2016년 내부철판(CLP)에서 부식 현상과 두께 감소, 미세구멍 등 문제점이 확인돼 점검 중이었다.

앞서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확인된 4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4호기는 지난해 11월 2곳, 지난 5월 6곳, 지난 8월 14곳 등 공극 22곳이 차례로 발견됐다.

지난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세

상광주전남행동'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에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원인규명·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번 점검으로 한빛원전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 2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 3호기는 격납건물에서 너트 등 이물질 발견과 증기발생기 불량부품 사용, 4호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등 이물질 발견과 격납건물 공극, 5호기는 격납건물에서 합판조각 발견과 사용후핵연료 건물의 콘크리트 미타설, 6호기는 보조 건물 내벽 공극이 확인됐다. 전체 1~6호기 모두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한빛원전은 현재 1~5호기가 설비 점검과 안정성 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정지하고 있다. 한빛원전이 지난 1986년 첫 운영에 들어간 이래 원자로 5기 이상이 가동을 정

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점검이 계속되면 공극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극이 발견된 2호기는 1호기와 함께 가장 노후화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호기는 1987년 6월 10일 첫 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6년 9월 11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이정운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격납건물 공극은 콘크리트 타설 당시 다짐작업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4호기 뿐 아니라 모든 건물에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단순한 정비 결과보다는 공극으로 인해 격납건물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저하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산우리밀축제 컬러풀 페스티벌

14일 광주시 광산구 송산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2회 광산우리밀축제'에서 폐막 퍼포먼스 '우리밀 컬러풀 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이 컬러파우더를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점수 미달 학생 특별교육·장애인 수영장 이용 제한 인권 침해

인권위 광주사무소 최근 3년

2359건 접수 253건 권리 구제

토익 성적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반강제적 특별교육, 보호자 없는 시각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제한, 근무 시간 중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을 돌보도록 지시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최근

3년간(2016년 1월~올해 9월)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 14일 발표했다.

올해 개소 13주년을 맞은 광주사무소는 지난 3년간 총 2359건의 진정을 접수했고 이중 253건(10.7%)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권리 구제 중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구제 조치가 55건(39.3%)로 가장 많았고, 각각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교직원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각각 30.2%, 29.2%로 뒤를 이었다.

기관유형별로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정신보건시설 1030건이었으며 이어 교정시설 715건, 각종 학교사건 186건(아동 113건·교직원 73건), 장애차별 140건, 지방자치단체 137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125건 순이었다. 학교 등교 때 학생들 대상 휴대전화, 학교폭력사건 가해학생에게 공개 사과문 낭독 지시, 시각장애인 근로자원인 출장여비 미지급 등이 인권 침해 사례로 꼽혀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빛원전 작동부품 납품

20여억원 채긴

해외업체 前영업부장 구속

국내 원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작동 부품을 납품해 20여억원을 채긴 해외 원전부품 생산업체 전 영업부장이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B사의 전 영업부장인 A(4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사의 국내 대리점 영업부장인 A씨는 2011년 2~5월에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B사의 비상 디젤발전기 호스 부품 계약을 맺은 뒤 부산의 한 영세 공업사에 의뢰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해 20여억 원을 채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 디젤발전기는 원전에 예기치 못한 정전 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필수 장치다.

A씨가 납품한 작동 부품을 비상 디젤발전기 내부에 물과 기름을 공급·배출하는 호스로 문제가 생기면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원전부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친 등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지만 A씨는 원전부품 생산경험이 전혀 없는 영세 공업사에 의뢰해 모조품을 만들어 납품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수원 측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작동 부품을 영광 한빛원전 비상 디젤발전기에 사용했다가 뒤늦게 정상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 후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8 달뜨기 12:19
해질 17:58 달짐 22:32

산불 조심하세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졌다.

광주	맑음	9/21	보성	맑음	7/21
목포	맑음	11/21	순천	맑음	11/22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8/21
나주	맑음	7/22	진도	맑음	10/21
완도	맑음	12/21	전주	맑음	8/21
구례	맑음	7/21	군산	맑음	8/20
강진	맑음	8/22	남원	맑음	6/21
해남	맑음	7/21	흑산도	맑음	14/20
장성	맑음	7/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50	23:39	05:43	18:30
여수	05:56	19:00	12:46	--:--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	☀	☀	☀	☀	☀	☀
11/20	8/20	7/20	8/20	7/20	8/21	10/20

참여자치21, 19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여자치21은 오는 19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기념토론회에서는 '참여자치21과 광주 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 (하정호 운영위원), '시민운동의 모범사례'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자치분권시대의 시민운동'을 주제로 김제선 희망재단 작소장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참여자치21의 그동안 활동과 지역 시민운동을 살

펴본다. 또한 참여자치21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평가, 전망을 담은 600쪽 분량 백서를 발간하고 지역 시민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8년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표방하며 창립한 참여자치21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광주시 총인사실 임찰 비리사건 조망, 보해소주의 지역차별 문제 부각, 호남고속도로 폭설 피해자 공익소송 등에 참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보조금 유용 혐의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검찰 송치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1일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양모 5·18구속부상자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국고 보조금 15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와 구속부상자회 인건비로 유용하는 등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경찰에서 "구속부상자회 운영이 어려워 보조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찰은 지난 4월 5·18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사업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고 못 가라!!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일시 2018. 10. 21(일) 09:30~

장소 모교 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동일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